

##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위도 해폐기장 보도를 중심으로

반 현·최원석·신성혜\*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석사과정·석사과정)

본 연구는 위도 해폐기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 갈등사안에 대한 언론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보도에 나타난 속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러한 언론의 의미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위도 해폐기장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한 결과 세 신문 모두 쟁점중심보다는 갈등중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 해폐기장을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주민보상 문제에 편중된 형태로 뉴스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기정대로,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용분석 결과를 근거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속성이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의 전이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차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위도 해폐기장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미 수용자의 의견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인지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키워드: 위도 해폐기를 처리장, 2차 의제설정 효과, 뉴스의 속성, 속성의 현저성, 부차적 효과, 프레임

## 1.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화물노조의 파업, 금융 파업, 농민시위, 내이스(NEIS), 이라크 파병, 그리고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사회 갈등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회 갈등 이슈가 발생할 때, 언론은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립과 갈등을 증대하거나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론 자신만의 시각으로 정보를 다루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언론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코헨(Cohen, 1963)은 언론은 독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언론이 독자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주목을 요구하며, 그 결과 독자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는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에 대한 기술로, 이후에 맥콤스와 쇼우(McCombs & Shaw, 1972)가 의제설정이론으로 체계화하여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맥콤스와 쇼우는 의제설정이론을 제시하면서 “매스미디어가 수용자들의 태도의 방향이나 강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선거 캠페인에서 그 의제를 설정해줌으로써,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의 현저성(salience of attitudes)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초기 의제설정 이론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이슈의 현저성뿐만 아니라 의제의 속성(attribute)이 공중 의제로 전이(transfer)된다는 2차 의제설정(second-level agenda)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2차 의제설정효과는 초기 의제설정이론의 인지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가정한다. 이러한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 이슈에 있어서 언론의 수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며,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이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갈등 유형으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혐오 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역 간의 마찰 유형인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7년 동안 표류해왔으며, 91년의 안면도, 95년의 굴업도 등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유력시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었다.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사안은 지난해 7월12일 부안군이 단독으로 유치를 신청함으로써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유치 신청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문제와 현금 보상 문제, 군수 폭행 사건, 경찰의 폭력 진압, 촛불 시위 및 등교 거부 등의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과 11월17일의 과격·폭력 시위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12월10일 정부가 주민 투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식을 도입해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으며 안면도, 굴업도에 이어서 부안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지역 주민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앞으로 어떤 지역이 유치 신청을 하더라도 제 2, 제 3의 부안 사태의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사회 갈등 이슈인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속성을 강조한 기사들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독자들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독자들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시각을 알아보고, 독자들의 인식 및 의견 형성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2차 의제설정 효과

초기 의제설정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하게 되면 수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고, 현대 언론학에 있어서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하나가 되었다(정만수, 1995).

맥콕스와 쇼우(1972)는 의제설정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1968년도 미국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매스 미디어에 의해 다루어진 이슈와 이들 이슈에 관한 실제적 내용을 서로 대조, 비교함으로써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초기의 의제설정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다루는 이슈의 중요도에 의해서 수용자들이 느끼게 되는 이슈의 중요도가 결정된다는 현저성의 전이를 검증하였고, 후속 연구들도 현저성의 전이를 중심으로 의제설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기업광고의 의제설정 과정을 검증한 연구와 웹사이트 캠페인이 뉴스 미디어와 공중의제에 미치는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온라인 신문의 인터넷 게시판의 의제설정 기능을 분석한 사례 연구, 쟁점유형별로 미디어가 공중의 문제인식과 정보추구행동에 미치는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병희, 2001; 구교태, 2002; 안영민, 2002; 차동필, 2002).

의제설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기존의 의제설정 효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맥콕스 등(McCombs et.al., 1997)은 리프만(Lippmann, 1922)의 “바깥세계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 in our heads)”을 인용하면서, 의제설정은 미디어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이 공중의 머릿속으로 전이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의 언론 매체로부터 의제의 현저성이 공중의제로 전이되는 1차 의제설정 효과를 포함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언론매체가 공중 의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더욱 가까운 개념으로 의제의 속성이 공중 의제 속성으로 전이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에 개념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언론 매체의 의제와 공중의제의 대상들은 현저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듯이, 각 대상의 속성들에도 차이가 있다. 언론 매체의 의제는 공중 구성원들이 각 대상에 대해 생각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관점들을 제공하며, 이러한 관점들은 특정 속성을 부각시키고, 배제시키기도 한다. 언론 매체에 의해 현저화된 속성은 독자들에게 전이되어 독자들이 대상의 특정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할 때, 속성의 현저성이 공중으로 전이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1차 의제설정 효과와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과정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의 중심 개념은 같다. 미디어 의제에 있어서 요소의 현저성, 대상 혹은 속성들은 공중 의제에 대한 대상 및 속성의 요소들의 현저성에 영향을 준다(McCombs & Evatt, 1995).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검증은 주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검증되고 있는데, 골란과 완타(Golan & Wanta, 2001)는 2000년 뉴햄프셔(New Hampshire) 예비선거 기간 동안 세 개의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이 유권자들의 인지적, 감정적 측면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현저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세 지역신문은 조지 부시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보수주의적 도덕관 등의 특정한 인지적 속성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보도의 속성은 유권자들의 부시 후보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를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서 살펴본 연구(McCombs, et al., 1997; Ban, 1999)와 정치 개혁 이슈에 대한 연구(Takeshita & Mikami, 1995), 지역 환경 이슈(Maher, 1995)와 관련한 연구에서 2차 의제설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 갈등 이슈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프레임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분석(양정해, 2001; 권혁남, 2001; 박경숙, 2002; 강내원, 2002)과 프레임이 독자들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준웅, 2001; 이 건혁, 2002)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뉴스 프레임 분석과 효과 연구를 통해 뉴스 프레임이 독자들의 인지적 측면과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사안에 있어서 언론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자체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 강조된 의제는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안에 대해 언론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불안 주민들의 시위를 지역 이기주의로 보도하거나 천연 기념물의 서식지이며 게다가 활성 단층이 발견되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아님에도 정부가 건설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도하는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및 논조가 그 사안에 있어서 속성이 되는 것이다.

## 2) 2차 의제설정 효과와 프레임링

프레임링(framing) 개념은 2차 의제설정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프레임링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의 공중 의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써 의제설정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Golan & Wanta, 2001). 그러나 프레임링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이런 다양한 정의가 의제설정 이론과의 관련성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이준웅, 2001). 프레임링과 의제설정의 개념적 관련성에 대해서 두 개념을 혼용할 수 있다는 학자들(Ghanem, 1997; McCombs, 1997)과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Scheffle, 2000)이 있다. 탠카드 등(Tankard et al, 1991)은 2차 의제설정을 프레임링과 연계하여 설명하면서 미디어 프레임이 “배경을 제시하고 이슈의 선택과 강조, 배제,

퇴고를 통해 암시된 뉴스 내용의 주요 의미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은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그 부분을 미디어에서 보다 중요하게 표현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특수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고, 도덕적인 평가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차 의제설정의 측면에서 엔트만의 정의를 차용하면 프레임িং은 특정한 대상이 논의될 때 관련된 속성들 중에서 미디어 의제에 포함되는 속성의 수를 제한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프레임링 개념은 1960년대 학생들의 정치 운동을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소화시켰는지에 대한 기틀린(Gitlin, 1980)의 연구에서 소개되었다. 이 연구에서 뉴스는 사회문제의 범위를 기술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안적인 제안들을 평가하고 사회 운동가들과 정부 관리들의 전술적 움직임을 세밀하게 제공함으로써 언론이 공중들로 하여금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프레임링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엔트만(1993)은 언론 매체가 공중에게 프레임링을 형성시켜주는 힘(power)을 언급하면서 프레임링이 특정 관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요인들을 무시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여러 관점들에 대하여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상 의제설정 연구를 실행한 많은 학자들은 언론매체의 내용에서 프레임링의 기능을 발견하였으며 쟁점에 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과 프레임링 간에 상용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내용 분석에 의해 측정된 언론매체의 의제와 서베이 연구를 통해 측정된 공중 의제를 비교하여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한 웨버 등(Weaver, et. al., 1981)의 연구와 벤톤과 프라이저(Benton & Frazier, 1976)의 공중 의제에 대한 속성 분석 연구, 그리고 뉴스 의제 상에 나타난 속성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제의 속성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한 코헨(Cohen, 1975)의 환경 쟁점에 대한 연구가 간접적으로 언론의 프레임링 효과를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의제설정 이론과 프레임링을 큰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적 갈등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프레임 연구를

바탕으로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디어 뉴스 구성 양식과 속성이 독자들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속성의 차원

2차 의제설정의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속성은 여러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넴(Ghanem, 1997)은 하위주제(subtopics), 프레임링 조립(framing mechanisms), 정서적(affective), 그리고 인지적(cognitive) 차원이 의제설정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맥콕스(1997)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요소는 수용자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감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속성이다. 인지적 요소는 이성적 측면으로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정보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다. 뉴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논조(tone)가 수용자들이 특정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정서적 측면의 예가 될 수 있다. 반면, 인지적 요소의 예로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그의 도덕적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였다면,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후보자들 중 누가 도덕적으로 가장 나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본 기사를 떠올리면서 그 후보라고 응답할 것이다. 이 두 속성은 골란과 완타(2001)의 미국 대선 경선 보도의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정서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에 대한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인지적 측면이 정서적 측면보다 수용자들에게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해폐기를 처리장 건설 사안의 인지적 속성들을 중심으로 언론에서 강조되어 보도된 불안 문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속성들인 해폐기를 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특정한 쟁점들과 찬성 및 반대 논조, 그리고 불안 주민에 대한 보도 태도들을 중심으로 수용자의 사안에 대한 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대상의 현저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속성의 현저성 전이에 대한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검증 외에도 의제설정의 부차적 효과(compelling argument)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부차적 효과는 언론 보도에서 강조된 대상의 속성이 공중의 속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대상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가넬(1996)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가넬은 지역 시장 선거의 의제설정 효과를 연구하면서 지역 문제에 대한 언론의 찬반 보도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슈 자체의 중요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안을 예로 들면, 언론이 불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도한다면, 수용자들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의 다른 사안들보다 위도 핵폐기장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의제설정 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가설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 갈등사안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의 속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 처리물을 구성하여 2차 의제설정 효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의 속성은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뉴스기사에 나타난 인지적 측면의 속성은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이성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뉴스기사에 나타난 정서적 측면의 속성은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의 속성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의 속성은 수용자의 이슈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은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이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가설 2>는 뉴스의 의미를 구성하는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은 2차 의제설정 이론의 부차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속성의 현저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대상에 대한 수용자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수용자들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언론이 구성한 의미대로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이슈보다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된다는 부차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4. 연구방법

##### 1) 1단계: 언론의 위도 핵폐기장 건설 관련 보도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언론매체의 뉴스 구성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뉴스 기사의 구성양식과 속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보수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성향의 <한겨레>,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설, 칼럼, 스트레이트, 심층보도, 기획·르포기사 등 위도 핵폐기장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KINDS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부안군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2003년 7월 12일부터 산업자원부가 위도 핵폐기장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발표한 12월 12일까지 약 5개월의 기간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각 신문에 보도된 위도 핵폐기장 관련 기사량은 <조선일보> 107건, <한겨레> 120건, <오마이뉴스> 147건 등 총 374건이었다.

세 신문이 보도한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은 뉴스 구성양식과 속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형식과 내용의 두 차원에서 판별되는데 이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식도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프레임 분석에서 형식적인 측면의 뉴스 프레임은 사건 중심 프레임과 주제 중심 프레임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은 핵심 주제를 기준으로 판별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뉴스 프레임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나 이엥거(Iyenger, 1992)가 제시한 사건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을 제외하면 프레임의 조작화와 관련하여 방법론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양정혜,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프레임 분석의 형식적인 측면의 프레임과 내용적인 측면의 프레임을 각각 2차 의제설정 효과의 뉴스 구성양식 및 뉴스의 속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도입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의 의미 구성방식으로 볼 수 있는 뉴스 구성양식은 쟁점(이슈)중심 보도와 갈등(사건)중심 보도로 구분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갈등’, 2점 ‘약간 갈등’, 3점 ‘보통’, 4점 ‘약간 쟁점’, 5점 ‘매우 쟁점’)로 분석하였다.<sup>1)</sup> 쟁점-갈등보도에 대한 분석은 2차원 척도(갈등 중심보도 vs. 쟁점 중심보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논문에서는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일관성을 위해 뉴스구성양식과 속성의 분석에 모두 사용하였다. 쟁점중심 보도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구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보도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폐기장 문제를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탐구나 해석을 다룬 보도, 사건의 원인과 결과, 해설이 있는 보도로 조작화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중심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중략) ... 국제적으로도 주민참여는 핵폐기물 처분장 확보의 핵심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핵에너지기구는 지난 3월 낸 보고서에서 “대중참여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형식적 참여’가 실패를 부른 영국 셀라필드, 독일 고어레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1월 13일자 A신문)

1) 쟁점중심 보도와 갈등중심 보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쟁점(이슈)중심 보도	갈등(사건)중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가지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는 보도</li> <li>• 시위 보도시 시위 발생의 배경, 시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도</li> <li>• 사건의 원인과 결과, 해설이 있는 보도</li> <li>•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보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시위에 대한 폭력성 중심 보도</li> <li>• 전경-시위대 마찰 중심 보도</li> <li>• 사안별 주민 대응 및 주민 동정에 관한 보도</li> <li>• 정부측 입장과 대응 계획, 무마대책 중심 보도</li> <li>• 정부-주민, 주민-주민간 갈등과 마찰 중심 보도</li> <li>• 지역 이기주의의 부각 보도</li> <li>• 전체적인 보도의 분위기가 갈등을 고조시키는 보도</li> <li>• 피상적인 스트레이트 기사</li> <li>• 불안 군수의 결단 미화 보도</li> <li>•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는 단순보도</li> </ul>

갈등중심 보도는 발생한 사건의 표면적인 측면을 증대하는 뉴스 구성 방식이다. 대부분의 갈등보도는 사건중심 프레임이 지배적이며(Lyenger, 1992), 사건중심 프레임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 부재는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금 현재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그 결과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 소수의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사회갈등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며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양정혜, 2001).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민 대응중심 보도와 원인 규명 없이 반대 시위의 폭력성만을 다룬 보도, 사건 주체간의 갈등양상을 부각시킨 보도 등을 갈등중심 보도로 간주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략) ... 시위대는 또 구청을 향해 돌, 보도 블록 등을 던져 청사 유리창 80여 장이 깨졌고, 쓰레기 수거차 등 6대가 부서졌다. 시위대 일부는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페타이어를 쌓아 불을 질렀으며, 밤 늦게까지 외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들로 막아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7월 23일자 A신문)

내용적인 측면의 뉴스의 속성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지적 속성은 프레임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사항 중에서 특정한 측면을 현저하게 부각시켜 사용함으로써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팀(2003)이 위도 핵폐기장 관련 TV뉴스 보도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보도쟁점을 바탕으로 안전성, 환경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현금을 포함한 주민보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 국책사업 당위성, 핵에너지 정책, 부지선정 적합성을 쟁점사항으로 선정하였다. 각 기사의 속성은 뉴스 보도의 핵심 주제를 판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하나의 기사에 두 개 이상의 보도쟁점이 공존할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진 쟁점사항을 해당 기사의 속성으로 판별하였다.

정서적 속성은 일반적으로 뉴스의 논조를 중심으로 판별된다. 본 연구에

서는 '위도와 부안 주민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뉴스의 논조를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뉴스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진행되었다. 전체 사례수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더간 신뢰도(Holsti)를 측정한 결과, 뉴스 구성양식의 경우 88%, 뉴스 속성 중 인지적 속성과 감정적 속성의 경우 각각 86%와 80%의 일치도를 보였다.

## 2) 2단계: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2월4일부터 8일까지 5일에 걸쳐 학부생 187명과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46명 등 총 233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자극물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뉴스 구성양식과 속성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실제 신문 기사를 KINDS를 통해 선정하여 실험에 맞게 제작하였다. 제작된 세 가지 유형의 실험처치물은 <표 1>에 제시된 세 가지 속성의 신문 기사를 사용한 것이다. 쟁점중심으로 보도된 두 가지 유형의 기사는 두 그룹의 실험집단에 대한 자극물로 사용되었고, 반대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한 갈등중심 보도기사는 통제집단에게 제시되었다.

내용분석 결과에서 설명하겠지만,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분석대상 신문의 뉴스 구성양식과 속성은 <표 1>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으며, 실험자극물은 각 유형의 속성과 논조가 반영되도록 작성된 것이다. <기사유형 1>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표에 제시된 네 가지의 속성을 중점적으로 차용하여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찬성하고 있으며('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당위성'을 강조한 뉴스 보도의 속성), <기사유형 2>는 표에 제시된 네 가지의 속성을 부각시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부적합성을 제시하면서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핵에너지

<표 1> 위도 핵폐기를 처리장에 대한 뉴스 구성양식과 속성

	핵폐기장 건설 당위성(기사유형 1)	핵폐기장 건설 부당성(기사유형 2)	주민부정-통제조건 (기사유형 3)
구성양식	쟁점(이슈) 중심 보도	쟁점(이슈) 중심 보도	갈등(사건) 중심 보도
인지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li> <li>• 환경무해</li> <li>• 지역경제 활성화</li> <li>• 국책사업의 당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선정 부적합성</li> <li>• 환경유해</li> <li>• 핵에너지정책의 재검토</li> <li>• 대체에너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시위 폭력성 부각</li> <li>• 정부-주민, 진압경찰</li> <li>-주민간 갈등/대응 중심</li> <li>• 지역이기주의 비판</li> </ul>
위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폐기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시급성 주장</li> <li>• 주민 설득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력 비판</li> <li>• 핵에너지 정책의 불가피성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선정의 문제점 적 원점 재검토 필요성 주장</li> <li>• 위도의 천연기념물 서식과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 제시</li> <li>• 핵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기주의 비판</li> <li>• 부안 주민의 폭력성 등 부정적 측면 부각</li> <li>• 사건의 원인과 배정에 대한 설명 부재</li> </ul>
감정적 속성 (부안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논조)	다소 부정적	긍정적	매우 부정적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보도의 속성)하고 있다. 부안 주민들의 반대시위에 대한 폭력성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는 갈등 중심의 보도기사는 통제조건으로 사용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두 그룹의 실험집단과 한 그룹의 통제집단에 무선 배치된 후 실험자극물인 신문 기사를 읽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불성실한 응답자 23명을 제외하고, 세 집단에 각 70명씩 총 210명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이 103명, 여성이 107명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91명, 30대가 9명, 40대가 10명이었다.

종속 변인의 측정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실험처치물의 타당성 검토와 <연구가설 1-1>의 검증을 위한 진술문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종속변인의 측정 자료의 타당성 검토’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연구가설 1-2>의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뉴스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인지는 (1) 불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시위는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2) 핵폐기물 처리장은 주변 자연환경에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3) 정부의 핵에너지 개발 정책은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라는 세 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가설 2>의 종속변인인 수용자의 의견은 (1) 불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시위는 ‘정당하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 (2)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정당하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 (3) 불안 사태가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또는 ‘불안 주민에게 있다’, (4) 핵폐기장 건설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네 개의 문항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의제설정이론의 부차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용자의 불안 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중요도와 인지도, 뉴스순위를 묻는 세 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뉴스순위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면 불안 사태는 어느 정도의 순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3) 종속변인 측정 자료의 타당성 검토

실험 처치물로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신문기사에 대한 실험 처치의 타당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되었다. 먼저, 각 처치물이 피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처치물에 대한 세 피험자 집단의 이해도와 흥미도, 개인적 연관성, 실제 기사와의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이 검증방법은 이견혁(2002)이 사용한 방법으로, 실험 처치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면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변량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의 신문기사에 대한 피험자 집단의 이해도( $F=2.18$ ,  $p=.116$ )와 흥미도( $F=.720$ ,  $p=.298$ ), 개인적 연관성( $F=.930$ ,  $P=.395$ ), 실



제 기사와의 유사성( $F=.49, p=.613$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험 처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신문기사의 속성 처치가 세 피험자 집단간에 차이가 나도록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 기사의 내용이 사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는지, (2) 불안 주민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3)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찬성하고 있는지, (4) 사건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험자 집단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실험 처치가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면 피험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변량분석 결과, 갈등중심 보도( $F=4.33, p=.014$ ), 불안 주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 $F=80.0, p=.000$ ), 핵폐기장 건설 찬성( $F=86.0, p=.000$ ), 쟁점 보도( $F=12.6, p=.000$ )의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 집단에 대한 실험 처치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종속 변인의 측정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인자분석(factor analysis)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사에 나타난 속성이 인지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척도의 8가지 항목에 대한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은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인 3가지 인자를 구성하였다. 첫번째 인자는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지지하는 기사'의 속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항목(안전성, 환경무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속원사업)이 묶인 것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799로 나타났다.

'위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기사'의 속성을 측정하는 네 가지 항목(환경유해, 핵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대체에너지 개발, 부지 부적합성)이 묶인 두번째 인자의 경우는 크론바흐 알파 값이 .725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알파 값을 .70 정도로 볼 때, 이들 8가지 항목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번째 인자는 주민보상과 관련된 한 가지 항목이 묶인 것으로 적절히 요인화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종속변인의 측정 척도는 두 가지 유형의 실험 처치물의 속성과 유사하게 요인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연구결과

### 1) 언론의 위도 핵폐기장 건설 보도 내용분석 결과

#### (1) 보도 형태와 빈도, 보도유형

본 연구에서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갈등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뉴스기사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 중앙 언론 중에서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인 <오마이뉴스>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각 신문은 위도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총 374건의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세 신문 모두 스트레이트가 5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설과 칼럼이 17.4%, 심층보도가 18.2%의 보도 빈도를 보였다. 세 신문이 동일하게 사건 중심의 스트레이트에 편중된 보도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건 중심의 보도가 내포하는 속성상 주민-정부, 주민-주민간 갈등 상황을 부각시켜 수용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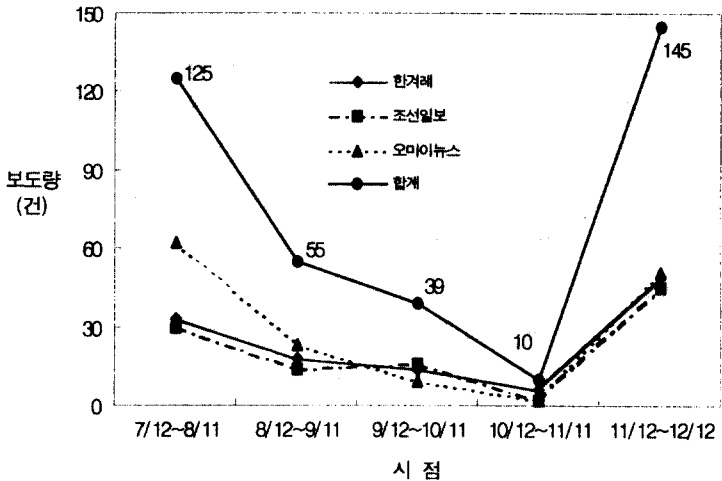
<표 2> 각 신문별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기사 분류

	조선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계
사설	15(14.0%)	9(7.5%)	-	24(6.4%)
칼럼	11(10.3%)	21(17.5%)	9(6.1%)	41(11.0%)
스트레이트	46(43.0%)	67(55.8%)	81(55.0%)	194(51.8)
심층보도(해설기사)	22(20.6%)	15(12.6%)	31(21.1%)	68(18.2%)
기획·르포기사	10(9.3%)	7(5.8%)	23(15.6%)	40(10.7%)
기타(인터뷰)	3(2.8%)	1(0.8%)	3(2%)	7(1.9%)
계	107(100%)	120(100%)	147(100%)	374(100%)

세 신문의 각 시점별 보도량은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불안 문제가 발생한 시점인 7월12일부터 8월11일 사이(33.4%)와 주민투표 시행 시기의 문제로 불안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안 주민의 반대 시위가 집중된 11월12일부터 12월12일 사이(38.8%)의 기간에 가장 많은 보도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세 신문 모두 주민 반대시위와 현금보상 문제, 등교 거부, 군수폭행 사건, 불안 주민과 경찰 사이의 시위를 둘러싼 극한 대립 등의 갈등 사안이 발생한 시점에 보도량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10월초에 정부와 불안 대책위가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화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동안은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이 선정적인 갈등 사안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각 시점별 보도량 분포



(2) 뉴스 구성양식과 속성 분석

뉴스기사의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 중 형식적 측면에서 뉴스 구성양식을 분석한 결과, 세 신문 모두 갈등(사건)중심 보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점을 ‘매우 갈등중심 보도’, 5점을 ‘매우 쟁점중심 보도’로 척도를 구성하여, 5점 척도로 뉴스 구성양식을 분석한 평균값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오마이뉴스>(M=1.79, 표준편차=1.26)가 가장 많은 갈등중심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조선일보>(M=2.15, 표준편차=1.41), <한겨레>(M=2.45, 표준편차=1.37)의 순이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인터넷 언론으로서 불안 주민들의 반대시위를 실시간으로 보도한다는 측면에서 갈등중심 보도의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진보언론을 지향하는 <오마이뉴스>의 속성상 시위 보도를 통해 불안 주민들의 입장과 주장을 알리기 위한 뉴스 구성양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점이 오히려 불안 주민과 정부, 경찰간의 갈등을 부각시켜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체적으로 세 신문 모두, 갈등중심의 보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불안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불안 주민의 반대시위와 동정,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전달하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뉴스기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뉴스의 속성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정서적 측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사의 논조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찬성/반대)에서 각 신문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의 논조(M=2.43, 표준편차=.94)에 있어 전반적으로 불안 주민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위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입장(M=2.79, 표준편차=.75)에 있어서도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이유로, 찬성에 가까운 보도태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오마이뉴스>의 경우에는 불안 주민들을 긍정적으로 보도(M=3.69, 표준편차=.91)하는 경향을 보였고,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M=3.42, 표준편차=.72)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겨레>의 뉴스보도에서는 불안 주민들이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도(M=3.08, 표준편차=.97)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에서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M=3.22, 표준편

차=.79)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배제할 경우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진보지인 <한겨레>, <오마이뉴스>간의 논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뉴스 구성양식과 감성적 측면의 뉴스 속성

		조선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mean	표준편차	mean	표준편차	mean	표준편차
뉴스 구성양식	갈등/쟁점 중심 보도 <sup>1)</sup>	2.15	1.41	2.45	1.37	1.79	1.26
뉴스속성 (감성적 측면)	기사는조 <sup>2)</sup>	2.43	.94	3.08	.97	3.69	.91
	찬성/반대 <sup>3)</sup>	2.79	.75	3.22	.79	3.42	.72

\* 5점 척도로 측정

- 1) 1점 '매우 갈등', 5점 '매우 쟁점' 2) 1점 '매우 부정적', 5점 '매우 긍정적'  
 3) 1점 '매우 찬성', 5점 '매우 반대'

뉴스의 속성 중 인지적 측면의 속성에 대한 분석은 위도 해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8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세 신문 모두 주민의견수렴 절차(22.5%)와 현금을 포함한 주민보상(8.6%)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반면, 환경문제(1.3%)와 안전성(3.7%), 부지선정 적합성(2.9%), 핵에너지 정책(2.4%) 등의 문제에 대한 쟁점사항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53.5%의 뉴스기사에서 쟁점사항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다양한 시각의 쟁점보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인지적 측면의 뉴스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언론매체에 따라 뉴스기사에서 채택하고 배제시키는 속성(쟁점)이 다르다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언론에서 여러 대상의 속성들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가정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 설득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경우 국책사업의 당위성(9.3%), 긍정적 측면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안정성(3.7%), 지역경제 활성화(3.7%)라는 속성을 중점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전반적으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부지 부적합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 <한겨레>의 경우는 부정적 측면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안정성(5.8%), 핵에너지 정책(5.8%), 그리고 부정적 측면의 부지선정 적합성(3.3%)에 대한 쟁점사항을 속성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인 <오마이뉴스>도 부지선정 적합성(2.7%)과 안전성(2.0%) 순으로 뉴스기사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표 4> 인지적 측면의 뉴스 속성: 뉴스기사의 주요 쟁점사항

	조선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계
안전성	4(3.7%)	7(5.8%)	3(2.0%)	14(3.7%)
환경문제	1(0.9%)	2(1.7%)	2(1.4%)	5(1.3%)
지역경제 활성화	4(3.7%)	1(0.8%)	0(0%)	5(1.3%)
현금을 포함한 주민보상	12(11.2%)	9(7.5%)	11(7.5%)	32(8.6%)
주민의견수렴 절차	28(26.2%)	39(32.5)	17(11.6%)	84(22.5%)
국책사업 당위성	10(9.3%)	2(1.7%)	2(1.4%)	14(3.7%)
핵에너지 정책	1(0.9%)	7(5.8%)	1(0.7%)	9(2.4%)
부지선정 적합성	3(2.8%)	4(3.3%)	4(2.7%)	11(2.9%)
갈등중심 보도	44(41.1%)	49(40.8%)	107(72.8%)	200(53.5%)
계	107(100%)	120(100%)	147(100%)	374(100%)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실험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험처치물을 구성하였다. 즉, '핵폐기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뉴스보도와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뉴스보도에서 각각 중점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가지 유형의 뉴스기사와 통제 기사를 작성하였다. 내용분석에서 세 신문이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주민보상과 관련한 쟁점사항의 경우는 신문별로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 실험처치물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2) 2차 의제설정 이론의 검증

### (1) 연구가설 1-1의 검증

: 뉴스기사에 나타난 인지적 측면의 속성이 수용자의 이성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1>은 뉴스기사에 나타난 속성이 인지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8가지 속성에 대한 뉴스기사는 인지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해석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뉴스기사(기사유형 1)에서 쟁점사항으로 다룬 안전성( $F=20.5, p=.000$ ), 환경무해( $F=12.0, p=.000$ ), 지역경제 활성화( $F=30.1, p=.000$ ), 국가의 숙원사업( $F=40.6, p=.000$ ) 등의 4가지 속성은 뉴스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평균값을 보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뉴스기사(기사유형 1)를 읽은 수용자가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기사(기사유형 2)를 읽은 수용자와 통제집단(기사유형 3)보다 뉴스기사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이 안전하고, 환경에 무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역할 것이고, 핵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국가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기사에서 쟁점사항으로 다른 환경유해( $F=25.7, p=.000$ ), 핵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F=32.0, p=.000$ ), 대체에너지 개발( $F=18.2, p=.000$ ), 부지 부적합성( $F=50.9, p=.000$ )에 관한 속성 역시 뉴스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실험집단별로 기사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값에 있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 기사를 읽은 집단은 다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뉴스보도에 나타난 4가지 속성에서 기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뉴스기사의 속성이 인지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Mean			F	Sig.
	기사유형 1	기사유형 2	통제집단		
핵폐기물 처리장과 그 시설은 안전하다.	3.27	2.21	2.72	20.5	.000
핵폐기물 처리장은 주변 환경에 무해하다.	2.94	2.11	2.59	12.0	.000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부안·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64	2.39	2.62	30.1	.000
핵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국가의 숙원사업이다.	4.51	2.91	3.34	40.6	.000
핵폐기물 처리장은 위도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61	3.71	2.67	25.7	.000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1.99	3.27	2.37	32.0	.000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2.79	4.04	3.19	18.2	.000
위도는 핵폐기장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	2.11	3.61	2.40	50.9	.000

\* 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항 중 안전성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간(기사유형 1, 2)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기사유형 3) 사이에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환경문제, 핵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대체에너지 개발, 부지선정 적합성에서는 실험집단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단지 실험집단 중 기사유형 1과 통제집단인 기사유형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당위성에서는 실험집단 중 <기사유형 2>와 통제집단인 <기사유형 3>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민보상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 (2) 가설 1-2의 검증

: 뉴스기사에 나타난 정서적 측면의 속성이 수용자의 감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2>는 뉴스기사에 나타난 속성이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종속변인을 ‘긍정’과 ‘부정’의 의미분별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사의 속성은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뉴스기사에 대한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시위가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 실험집단 별 수용자의 해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7.6, p=.000$ ).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뉴스 기사를 읽은 수용자는 뉴스기사의 내용이 부안 주민들의 시위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M=2.61$ )고 해석한 반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 기사를 읽은 수용자는 뉴스기사의 내용이 부안 주민들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M=3.38$ )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집단은 뉴스

기사의 내용이 불안 주민들의 시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해석(M=1.91)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핵폐기물 처리장은 주변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각 실험집단별 수용자의 해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9.1, p=.000).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부정적’이라고 해석(M=1.97)한 반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한 뉴스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보통’ 정도로 해석(M=3.04)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뉴스기사에서 정부의 핵에너지 개발 정책이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용자들의 해석에서도, 각 실험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2, p=.000).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한 뉴스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다소 긍정적이다’에 가깝게 해석(M=3.58)한 반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해석(M=2.6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불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에서는 실험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와 정부의 핵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기사에서는 실험집단 중 <기사유형 1>과 통제집단인 <기사유형 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표 6> 뉴스기사의 속성이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Mean			F	Sig.
	기사유형 1	기사유형 2	통제집단		
불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시위는	2.61	3.38	1.91	37.6	.000
핵폐기물 처리장은 주변 자연환경에	3.04	1.97	2.70	19.1	.000
정부의 핵에너지 개발 정책은	3.58	2.67	3.27	13.2	.000

\* 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부정적이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긍정적이다’)

### (3) 가설 2의 검증

: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사안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1>과 <연구가설 1-2>의 검증을 통해 뉴스기사에 나타난 속성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기사 내용에 대한 해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2>는 이러한 수용과정을 거친 뉴스기사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과 성별, 매체이용도,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을 가외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뉴스기사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독립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의 주 효과만을 중심으로 모델을 상정하였다.

가변인 회귀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외변인 중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부안 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시위’(B=.22, p=.002)와 ‘부안 문제가 악화된 책임 주체’(B=.19, p=.006)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과 정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고, ‘핵폐기장 건설 필요성’(B=-.21, p=.001)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과는 부적의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주안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정당하고, 부안 문제가 악화된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외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사의 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한 뉴스기사는 ‘정부의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B=-.17, p=.0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외의 기사의 속성은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네 가지의 수용자의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미 수용자의 의견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어, 뉴스 속성에 대한 한 차례의 노출이 수용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스의 속성에 대한 노출과 수용자의 의견형성 및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반복적인 노출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뉴스 기사에서 강조된 사안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뉴스기사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

	부안 주민들의 반대시위에 대한 의견 <sup>1)</sup>	정부의 위도 핵폐기장 건설 정책에 대한 의견 <sup>2)</sup>	부안 문제가 악화된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sup>3)</sup>	핵폐기장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sup>4)</sup>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령	-.01	-.05	-.18**	-.01
성별	.07	-.17*	.06	-.18*
매체이용도	.01	.02	-.001	.07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22**	-.08	.19**	-.21**
기사 1	-.14	-.17*	-.10	.16
기사 2	-.05	.01	.10	.06
F	2.63*	2.38*	3.24**	5.67***
R2	.07	.07	.10	.14

\* 표준화계수(β)만 제시(\*p<.05, \*\*p<.01, \*\*\*p<.001)

1)2) 1점 '정당하다', 5점 '정당하지 않다' 3) 1점 '정부에 있다', 5점 '부안 주민에게 있다' 4) 1점 '찬성한다', 5점 '반대한다'

#### (4) 가설 3의 검증

: 부차적 효과의 확인.

2차 의제설정 효과의 부차적 효과는 언론에서 강조된 대상의 속성이 수용자의 속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대상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의 속성이 수용자의 이슈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부차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성별)과 매체이용도,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을 가의변인으로 설정한 가변인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부차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실험이 진행된 시점인 12월 초가 불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불안 문제의 뉴스노출이 극대화된 시기였다는 외적요인이 뉴스기사의 속성에 관계없이 수용자의 전반적인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 개 신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전체 불안 보도의 38.8%(전체 374건 중 145건)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안 문제는 올해의 주요 갈등 소재 중 하나로서 이미 언론보도에 의한 노출이 심화된 사안이라는 점도 실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과 논의

### 1) 결과의 요약 및 논의

1차 의제설정 이론은 언론에 나타난 특정 사안에 대한 현저성은 공중에 전이되고 이를 통해서 해당 이슈는 사회적 의제로 설정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이러한 대상의 현저성에 대한 전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나타난 의제 속성의 현저성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공중에게 전이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부차적 효과를 통해 미디어에 나타난 속성의 현저성은 공중의 대상에 대한 현저성에도 영향을 미쳐 공중이 그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아직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된 의의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도출되었다. 첫째, 위도 핵폐기장 건설이라는 사회갈등 사안이 이념적 성향이 각기 다른 미디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의미가 구성되고 있으며, 어떻게 속성지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2차 의제설정 효과에서 전제하고 있는 ‘언론에서 대상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속성의 현저성은 뉴스 구성양식과 함께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효과이론의 중요한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의제설정 효과는 속성의 현저성에 좀더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갈등 사안의 경우 속성의 현저성이 미디어의 논조와 성향, 그리고 사안의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분석대상인 세 신문은 위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시각에 따라 위도 핵폐기장을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 중 특정 속성을 채택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자신의 논조와 관점에 따라 뉴스의 속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뉴스의 속성과 더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뉴스의 구성양식도 뉴

스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갈등중심 보도와 쟁점중심 보도로 구분하여 뉴스의 구성약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갈등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는 사건중심 보도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Iyenger, 1992). 그리고 이러한 갈등중심의 보도는 그 특성상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당사자들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이로 인해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소수의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양정혜, 2001).

위도 핵폐기장 문제 역시 미디어들은 갈등중심 보도에 편중된 보도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의 보도가 위도 핵폐기장 문제를 단지 정부와 지역주민, 또는 핵폐기장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만 비춰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의 갈등중심 보도 태도는 위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사안을 핵 에너지 문제나 환경문제, 중요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의 사회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이기주의나 보상의 문제로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지적 측면에서 뉴스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디어가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현금을 포함한 주민보상 문제에 편중되게 뉴스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도 핵폐기장 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언론이 사회 갈등사안을 다룸에 있어 사건의 맥락과 배경, 원인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중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제공하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내용분석을 토대로 실험연구를 진행한 연구 설계는 가상의 실험처치물이나 조작된 실험처치물이 아닌 현실의 미디어에서 실제

로 나타나고 있는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2차 의제설정 효과의 중심 개념인 속성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뉴스기사에서 나타난 속성의 현저성은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이 특정 사건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특정한 속성을 채택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특정 속성의 현저성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속성의 현저성은 수용자의 속성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뉴스기사에 나타난 속성이 갈등 이슈에 있어서도 수용자의 감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차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좀더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차후 연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미디어에 의해 현저화된 속성은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인지적인 단서(cognitive cues)’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미디어에 노출된 수용자들에게 특정 이슈의 현저화된 속성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의 전이가 해당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형성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2차 의제설정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축적된 미디어의 중효과 이론임을 가정한다면 미디어에서 강조된 속성의 전이가 수용자의 의견형성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수용자의 경험적 지식이나 정치적 성향, 가치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이슈에 따라 미디어 속성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과 발전된 이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위도 핵폐기장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쟁점화된 5개월의 기간 동안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와 편파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수용자에게 인식되었다는 점과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갖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속성이 수용자의 의견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현저화된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인지되고, 나아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차적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에 실패한 이유는 실험이 진행된 시점이 불안 문제에 대한 뉴스노출이 극대화된 시기였다는 점과 불안 사안이 올해의 대표적인 주요 이슈로서 이미 언론보도에 의한 노출이 심화된 사안이라는 점이 실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가변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매체이용도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측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2차 의제설정 효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에 의해 강조된 이슈의 특정 속성의 현저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이러한 현저성의 전이가 이슈의 현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뉴스 미디어의 관점이 뉴스보도의 속성에 반영되어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나고 수용자의 뉴스 해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향후 연구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연구 설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타당한 실험설계와 측정도구를 검증해보고자 했던 연구 의도에 비취볼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피험자에게 실험 처치물을 한 차례만 노출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설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뉴스보도에서 구성된 의미는 수용자에게 인지되고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주요 이슈일 경우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험 처치물을 반복해서 노출하는 실험방법과 장기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수용자의 의견 형성과 부차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위도 핵폐기장 건설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안은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상의 사건이나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사안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채택하여 실험 연구를 하는 것도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사전-사후 연구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제한점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피실험자의 무선배치를 통해 피실험자 집단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실험처치 후 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연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형성에는 미디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적 성향, 미디어 이용정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전-사후조사를 통해 수용자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에 실패한 부차적 효과의 경우에도 사전-사후조사를 통해 검증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 표본 선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많이 포함된 교육대학원생을 일부 포함시켰지만, 연구결과에 일반화에는 제한점

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갈등사안에 대한 공중의 의견 형성에는 연령과 학력 등의 인구조화학적 요인과 정치적 성향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표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절차와 같이 실제 언론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의 속성을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 의제설정 효과는 프레이밍 효과와 더불어 미디어 효과이론의 이론적 틀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과 뉴스의 속성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인지되고, 이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사안과 매체에 적용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구교태 (2002). 웹사이트 캠페인이 기존 뉴스 미디어 의제와 공중의제에 미치는 영향: 의제 설정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46~75.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김병희 (2001). 기업광고의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50권, 7~36.
- 권혁남 (2001). TV 방송의 사회 갈등 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 의약 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45~84.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 민 (2003). 부안 해폐기장 관련 지역언론 보도비평. 『부안보도 이대로 좋은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세미나 발

표문.

- 송종길 (2003). 『전북 부안군 위도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관련 TV뉴스 보도 분석』(조사분석 03-08).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안영민 (2002). 신문 매체의 월드 와이드 웹 게시판에 대한 의제설정 기능 사례 연구. 『영상논총』, 10집, 125~151.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건혁 (2002).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252~288.
- 이송지혜 (2003). 부안 핵폐기장 관련 중앙 주요 일간지 보도 문제. 『부안 보도 이대로 좋은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세미나 발표문.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권, 85~152.
- \_\_\_\_\_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 정만수 (1995). 기업광고의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6권 1호, 7~34.
- 차동필 (2002). 쟁점유형별 공중의 문제인식 및 정보추구행동에 미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6권 3호, 458~489.
- 한균태 (1997). 합의구축을 위한 언론매체의 의제설정 역할. 『사회과학연구』, 23권, 59~84.
- Benton, M., & Frazier, P. J. (1976). The agenda 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at three levels of information holding. *Communication Research*, 3, 261~274.
- Cohen, B.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hen, D. (1975). *A report on a non-election agenda setting study*. Paper

-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Ottawa, Canada.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Ghanem, S. (1996). Media coverage of crime and public opinion: An exploration of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an, G. & Wanta, W. (2001). Second-level agenda setting in the New Hampshire primary: A comparison of coverage in three newspapers and public perceptions of candidat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2), 247~259.
- Iyenger, S. (1992). *Is anyone responsible: How TV frame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ousis, S., Bantimaroudis, P., and Ban, H. (1999). Candidate image attributes: Experiments on the substantive dimension of second level agenda setting. *Communication Research*, 26(4), 414~428.
- Maher, T. Michael. (1996). Media framing and public perception of environmental causality.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12, 61~73.
- McCombs, M. (1997). *New frontiers in agenda setting: Agendas of attributes and frames*. Paper presented at the senior scholars sessio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icago.
- McCombs, M., & Evatt, D. (1995). Issues and attributes: Exploring a new dimension in agenda setting. *Communication y Sociedad*, 8, 7~32.
- McCombs, M., Llamas, P. J., Lopez-Escobar, E., & Rey, F. (1997). Candidate image in Spanish elections: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703~717.
- McCombs, M., & Shaw, D.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Scheufele, D.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3, 297~316.
- Takeshita, T., & Mikami, S. (1995). How did mass media influence the voters' choice in the 1993 general election in Japan: A study of agenda setting. *Keio Communication Review*, 17, 27-41.
- Tankard, James W. Jr., et al. (1991).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resented to the communication theory and methodology divisio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onvention, Boston.
- Weaver, D. H., Graber, D., McCombs, M., & Eyal, C. (1981). *Media agenda-setting in a presidential election: Issues, image, and interest*. NY: Praeger.

(최초 투고 2004.02.29., 최종원고 제출 2004.04.10)

## News Attributes and the Second-level Agenda Setting Study

Coverage of the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y in Wido

Hyun Ban

Professor

Won-Seok Choi

Sung-Hye Shin

Graduate students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ws attributes of the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y in Wido by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two newspapers (Chosun Ilbo and Hangyoreh) and Ohmynews. Furthermore, this study measured the effects of news attributes on readers' attitude, opinion, and recognition of the event.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indicated that all three newspapers focused on event-oriented coverage than issue-oriented one. Also, they only dealt with two issues—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sidents and rewards for residents—among a total of nine issues. That is, according to the hypothesis of the second-level agenda-setting theory, the media emphasize on a particular attribute while ignoring other attributes, which, in turn, make the particular attributes more salient.

Based on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measure the effects of media attributes on public recognition toward the attributes in terms of cognitive and of affective aspect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edia attributes and public attributes, which confirmed the effects of the second-level agenda setting. However, the transfer of attributes did not take place in affecting public opinion and public recognition of the event itself.

**Key word:** the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y in Wido, second-level agenda setting effect, news attributes, attribute salience, compelling argument, framing